

이혼이 여성의 친밀감과 생성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

최혜경

안정신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의 상황적 특성과 이혼 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 따라 이혼여성들의 친밀감 및 생성감 발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폭력문제를 보고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 보다 확대생성감이 낮게 나타났다. 둘째, 이혼 후 경제적 자원은 소득이나 직업 등의 객관적인 특성 보다는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친밀감과 생성감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셋째,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감과 확대생성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교육수준이나 이혼상황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넷째, 경제적, 사회적 자원 변인들은 이혼사유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이들 자원변인들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주시기도 하고, 오히려 강화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혼사유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혼여성의 성인기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핵심어: 이혼사유 · 경제적 자원 · 사회적지지 · 친밀감 · 생성감

한국사회가 경험해온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가족의 불안정성이라는 부정적인 변화를 수반하고, 이를 나타내는 명백한 자료중의 하나가 이혼이다. 이혼가정의 증가는 1970년대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결혼에 대한 이혼율이 1970년에는 5.1%에서 1980년에 7.9%,

1990년에는 10.8%로 급속한 증가를 보였다. 특히 IMF체제하에서 경제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최근에는 가족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어, 가족 불안정성의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인 이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요구된다.

이혼은 가족제도의 불안정성을 나타낸

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함의를 지니는 한편, 개인과 가족의 복지에 단기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발달적 함의를 지니기도 한다. 주요 인간발달 모델들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아래세대에 대한 양육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성인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시한다(Erikson, 1963;).

Erikson(1950; 1963)의 인간발달 모델에서는 청소년기에 정립된 자아정체감이 성인기동안 대인관계, 사회적 접촉 등을 통하여 꾸준히 발달된다고 설명한다. Erikson은 성인 초기(20-40세)와 중기(40-60세)의 발달과업을 친밀감 대 고립감의 갈등과 생성감 대 침체감의 갈등을 해결하고 자아감을 지속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 동안 정체감을 획득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는 감정이입(empathy)의 능력이 형성되어, 성인초기에 자기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친구나 애인, 부부관계, 전우애 등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 진정한 상호관계를 이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립감에 빠진다(장휘숙, 1993; 윤진, 1994). 친밀감과 고립감의 갈등을 해결하였을 때 생성되는 미덕이 사랑(love)이다.

성인 초기동안 친밀감을 획득한 사람들은 두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넘어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타인을 보살핌으로 생성감을 획득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자신에게 로만 빠져들고 자기침체에 빠진다(장휘숙, 1993). 이 시기는 단순히 자신과 자기세대의 이익과 번영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 아니라 자기자손들의 세대

를 위해 헌신하는 기간이다(윤진, 1994). 생산감을 이루었을 때 나타나는 미덕은 자녀들 또는 더 나아가 아래세대에 대한 양육(care)이다.

Erikson의 이론에 근거할 때, 이혼은 부부관계라는 친밀한 관계의 해체를 가져와서 이혼 경험자들은 자신에 대한 정체감을 이혼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감으로 변화시켜야만 하는 자기정체감의 위기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워질 수 있고, 또한 자녀나 아래세대에 대한 양육자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등 친밀감이나 생성감의 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개인들이 결혼을 통해 이러한 성인기의 발달과업을 수행하므로, 이혼으로 인한 결혼관계의 상실은 성인기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혼의 장기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성인기 발달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주로 생활만족도와 우울감 변인(한경혜, 1993; 나인옥, 1997; 허정원, 1998; 성경현, 1998), 내외통제성(Cheryl, 1982), 신체 및 정신적 건강(Bursik, 1986; Cheryl, 1982; Duffy, 1995; Scott, 1991) 등의 단기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적응을 다루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이혼이 친밀감이나 생성감과 같은 성인기발달에 어려움을 가져올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Heatherington(1977)은 이혼여성의 경우 이혼 후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감소하며, 자기정체감이 손상되는데, 자기정체

감을 증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성과의 친근한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혼으로 친밀한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친밀감 발달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생성감과 관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은 부모역할 수행과정의 방기로 인식되며(곽배희, 1994), 부모들은 아동에게 권위 있는(authroitive) 부모역할을 하기 힘들어진다는(Emery & Dillon, 1994)는 보고들이 있다. 또한 이혼부모는 이혼전 보다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적어지므로 더 많은 거리감을 느끼게 되거나, 부모가 너무 극단적으로 자녀에게 의존적이 되기도 한다(Wallerstein & Blackslee, 1989). 자녀와의 관계를 떠나 개인적으로도 역할혼란을 느끼고 자기 유능감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특히 자신의 역할을 가족중심으로 두었을 경우는 이러한 결과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Emery & Dillon, 1994).

특히 여성은 일차적 정체감을 가족내 역할로 정의하도록 사회화되어 왔기 때문에 이혼이 자존감(self-esteem)의 원천이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의 실패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남성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시간이 더 걸린다(Hetherinton, Cox & Cox, 1978). 실증연구들도(Price & McKenry, 1988; Raschke, 1987) 이혼한 여성은 남성 보다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경제생활, 사회활동, 재혼의 기회 등에 있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러나 최근의 학자들은 이혼을 하나의 사건이라기 보다는 전이과정(transition)

으로서 이혼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화의 과정으로 본다(Emery & Dillon, 1994).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성인기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독립적 생활에 잘 적응하여 오히려 자신감이나 자존감의 향상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다(Price & McKenry, 1988).

이혼 후 성인기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로서 이혼시기, 이혼사유 등의 이혼상황특성(김순옥, 1993; Beal, 1980; 조복희, 신화용, 1991; Hetherington, Cox & Cox, 1977; 한경혜, 1993; Gutman, 1993; 허정원, 1998)과 이혼 후 활용할 수 있는 재정, 사회관계 등의 경제적, 사회적 대처자원(김영희, 1996; Kitson & Morgan, 1990; Richard & Schmiede, 1993; McLanahan & Booth, 1989; 허정원, 1998; 원효중, 1997; 조병은 서동인, 1998; 한경혜, 1993)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혼의 상황적 특성 중 결혼의 어느 시점에서 이혼을 했는가에 따라 이혼이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보고들이 있다. 본인의 연령 또는 결혼지속 년수가 많을 수록 이혼 후 적응이 어렵다.

(Hetherington, Cox, & Cox, 1977; Nelson, 1981; 한경혜, 1993) 이는 결혼관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거나, 오랜 기간동안 결혼관계를 통해 자아개념과 정체감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Hetherington, 1977) 이혼의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대개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도록 사회화 되어

있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젊은 여성들은 높은 교육수준과 양성적인 성역할 가치관으로 인해서 더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 자녀의 양육과 관련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는데, 이들에게 자녀들은 부담스러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지지대상이 되므로 오히려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혼상황 특성을 측정하는 변인으로 이혼사유를 들 수 있으나, 이혼사유에 따른 이혼 후의 발달차이에 대한 구체적 시사점을 주는 연구들은 매우 드물다.

한편 이혼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자원의 중요성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Spanier & Castro (1979)는 이혼한 사람들은 주거지 이동과 소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므로, 사회관계망과 경제적 자원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혼 후의 적응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자원과 관련하여 허정원(1998)의 연구에서 이혼편모는 친족으로부터는 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직장 동료나 참여단체 성원으로 부터는 비교적 적은 지원을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혼한 편모가 부모나 형제자매 또는 친척의 지원을 받을수록(김영희, 1996; Kitson & Morgan, 1990), 사회관계망이 크고 접촉이 많을수록(Richard & Schmiede, 1993; McLanahan & Booth, 1989) 이혼 후의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며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자원의 완충효과를 시사한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 지원이 긴장과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 자존감의 손상, 문제행동 강화, 새로운 기회의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Broderick (1988)이나 Rands(1988)등의 견해도 있다. 그 이유로 원효중(1997)은 과도하게 긴밀한 사회관계망은 그 내에서 작용하는 제한적이고 억압적인 규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원조를 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탈을 재강화하기도 하며, 관계망의 경계가 너무 엄격할 경우에는 관계망의 범위를 뛰어넘는 성장경험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혼 후 적응에 대한 경제적 자원의 영향을 보면, Hetherinton(1977)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의 경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족과 비교하여 이혼사건이 경제적 스트레스, 부모자녀간의 병리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의 발달상의 일탈과 상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희, 김갑숙, 최외선(1995)은 편모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문제의 정도가 낮았다고 하였다. Bienstock (1988)도 이혼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적응이 용이하다고 하였으며, 한경혜(1993)는 이혼여성의 경제적 형편이 좋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증 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자원의 완충효과를 시사한다.

한편, 조병은, 서동인 등 (1998)은 이혼·사별·편모가족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로 어떠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자원에 대한 주관적 지각에 따라 적응의 양상이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이혼이 여성의 성인기발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

적, 사회적 자원이 완화시켜 주며, 또한 자원의 객관적인 특성 외에 자원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을 이혼연구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제까지 한국에서는 이혼을 다루는 연구들이 적고 이들 연구들도 이혼가족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이혼의 증감추세나 사유분석 등에 머물어, 이혼가족이 이혼 후 경험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서 성인기 발달과업을 수행해 가는지 그 관련요인들을 파악하는데 많은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혼을 하나의 전이과정으로 보고 이혼 후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 여성들의 성인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아래세대에 대한 양육자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이혼경험이 여성들의 성인기 발달을 살펴보고, 둘째, 이혼의 상황적 특성과 경제적, 사회적 대처자원에 따라 여성의 성인기발달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느 한 시점에서의 적응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 발달적 의미에서의 발달상의 어려움을 살펴봄으로써, 이혼의 단기적 영향 뿐 아니라 장기적 영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문제들을 한국 여성들의 이혼상황 특성 및 활용 가능한 대처자원들과 연결함으로써, 한국실정에 맞는 이혼대책 프로그램이나 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방 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상 가족생활주기 상에서 친밀감과 생성감의 발달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이혼 모로 연구대상을 제한하였다. 자녀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자녀양육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크다는 사실에 기인한다(한국가족학연구회, 1993:). 또한 거주지역을 도시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지난 10년간 도시지역에서 이혼율의 상승으로 인한 편부모가구가 급증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통계청, 1997a).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혼여성 61명이다.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30대(26명, 42.6%)와 40대(30명, 49.2%)가 대부분이고, 평균연령은 34.8세로서 성인기 초기와 중기에 걸쳐있다.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9명(14.8%), 고등학교 졸업이 24명(39.3%), 전문대졸업이 7명(11.5%), 대학교 졸업은 18명(29.5%), 대학원이상 졸업은 3명(4.9%)으로 나타났다. 1995년 학교교육을 마칠 연령인 25세 이상 인구의 학력구성이 고졸 38.0%, 대졸이상 19.7%인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조사대상자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1997b). 직업은 무직이 7명(11.5%), 단순직이 22명(36.1%), 자영업이 13명(21.3%), 전문직이 18명(29.5%)이고, 소득원은 본인의 직업만인 경우가 26명(42.6%), 직업 외에 재산소득이나

양육비 또는 친정의 도움이 추가되는 경우가 30명(49.1%)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월평균 가구소득의 분포는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상까지 그 편차가 크다. 그러나 1997년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190만원(통계청, 1998)보다 적은 경우가 3/4 이상으로 전반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생활수준은 낮다가 13명(21.3%), 중간이 34명(55.7%)이고, 높다가 14명(23.0%)으로 반수 이상이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간정도로 지각하고 있었다. 이혼 전과 비교해서 자신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다고 지각하거나(10명, 16.4%) 변화가 없다고 지각하는 경우(7명, 11.5%)도 있으나, 대부분이 나빠졌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4명, 72.1%).

연구대상자들의 이혼상황을 볼 때, 결혼 지속기간은 평균 9.66년으로 1996년 이혼 부부의 평균 결혼지속기간인 9.6년과 비슷하다(통계청, 1997a). 이혼 후 경과기간은 1-2년이 19명(31.1%)이고 3-5년이 19명(31.1%), 6-8년이 13명(21.3%), 그리고 9년 이상인 경우가 10명(16.4%)으로 평균 5.16년이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을 순서대로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가장 큰 원인으로 이성문제(21명, 34.4%), 생활차이문제(15명, 22.9%), 폭력(11명,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재판이혼의 이혼사유가 부정행위(이성문제), 학대(폭력문제), 악의유기(경제문제)였던 것과 유사하다(법원행정처, 1995-1998). 그러나 응답자들이 대체적으로 이혼사유를 순위별로 여러 개를 보고한 것으로 보

아, 이혼을 결정하는 데에는 한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측정도구

성인기 발달 변인들의 측정도구는 Erikson(1963)이 제시한 친밀감과 생성감의 개념에 기초하여 개발되었다(안정신, 1998 참고). 각 측정도구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이루어진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였다.

친밀감은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타인과 특히 이성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Erikson(1963) 정의를 토대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친밀감 척도는 선행이론 및 연구들을(Erikson, 1963; 장휘숙, 1993; 윤진, 1994) 참고로 하여 고안한 6문항으로서 요인분석 결과 1요인(Chronbach's $\alpha=.84$)으로 구성되었다.

Erikson(1963)은 생성감을 '자녀를 낳아 양육하면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며, 자신과 자기세대의 이익 뿐 아니라 자기자손들의 세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자녀와 관련된 care와 더 확대된 의미의 양육자로서 제공하는 care를 포괄하는(Erikson, 1963; 장휘숙, 1993; 윤진, 1994) 23문항을 고안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생성감은 부모역할감과 확대생성감, 그리고 침체감의 세 요인으로 구성된다. '부모역할감'은 자녀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지각을 나타낸다(Cronbach's $\alpha=.85$). '확대생성감'은 보다 넓은 의미로의 삶에 대한 평가로서 부모역할을

뛰어넘는 사회의 아래세대에게로까지 양육의 범위가 확장된 것이고(Cronbach's $\alpha=.82$), '침체감'은 자신의 인생에서 변화가능성을 찾지 않아 자기 아래세대로 양육의 범위를 확장시키지 못한 것을 반영한다(Cronbach's $\alpha=.55$).

이혼상황특성 변인으로 이혼 시 본인의 연령, 결혼지속기간, 이혼 후 경과기간, 그리고 이혼사유를 고려하였다. 이혼사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원인을 순서대로 3개까지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이혼사유 유형을 이성문제, 폭력문제, 생활차이문제, 경제문제의 4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각각의 사유유형이 한 번 이상 포함된 경우는 1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0점으로 처리하여 각 사유유형별로 가변수화 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자원 변인중 경제적 자원으로는 현재의 직업유무와 소득수준, 주관적 현재생활수준, 이혼 후 생활수준의 변화에 대한 지각을 고려하였다. 주관적 현재생활수준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까지 10점 척도로 구성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상향변화를 의미한다. 사회적 자원으로 사회적 지지를 고려하였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자신이 사회관계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를 지각하는 정도(Berman & Turk, 1981)를 묻는 총 8문항으로 측정하였다(Chronbach's $\alpha=.85$).

표 1.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변 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일반적 특성																
1. 연령	-															
2. 교육수준	-.25	-														
이혼상황변인																
3. 결혼지속기간	.45**	-.22	-													
4. 이혼경과기간	.48**	-.19	-.19	-												
5. 이성문제 이혼사유 *	.08	-.13	.18	.00	-											
6. 폭력문제 이혼사유 *	.16	-.00	.02	.23	-.26*	-										
7. 차이문제 이혼사유 *	-.02	.36**	-.13	-.05	-.28*	-.16	-									
8. 경제문제 이혼사유 *	.00	-.19	.01	-.16	-.15	-.21	-.14	-								
경제적, 사회적 자원변인																
9. 소득수준	.18	.44**	.15	.08	.01	.03	.24	-.11	-							
10. 직업유무	.21	-.29*	.23	.14	.04	-.01	.09	-.13	-.31*	-						
11. 주관적 생활수준	-.16	.46**	-.08	-.06	-.14	-.07	.19	-.09	.64**	-.42**	-					
12. 이혼전·후 생활수준 차이	.11	-.13	.14	-.16	.08	-.04	-.02	.05	-.09	.07	-.15	-				
13. 사회적지지 지각	.07	-.16	.17	.08	-.02	-.10	-.15	.31*	-.05	-.08	.07	-.08	-			
발달과업																
14. 친밀감	-.11	.21	.10	-.05	.12	-.06	-.03	-.12	.25	-.11	.31*	-.10	.22	-		
15. 부모역할감	.04	.02	-.17	.11	-.23	-.04	.18	.15	-.07	-.10	-.01	-.05	.44**	.12	-	
16. 확대생성감	.06	-.10	.23	-.07	-.01	-.32*	.02	.15	.20	-.10	.27*	-.10	.47**	.26*	.27*	-
17. 침체감	-.05	.14	-.05	-.07	.02	-.13	.05	-.08	.12	-.05	.17	-.11	-.09	-.01	-.30*	-.07
평균	34.8	13.2	9.7	5.2	.48	.41	.69	.52	146	.88	4.2	.56	28.1	21.2	31.7	25.9
표준편차	6.24	2.71	5.1	3.6	.50	.50	.47	.50	77.3	.32	1.9	.76	5.56	5.04	4.47	4.47

* $p<.05$ ** $p<.01$ *** $p<.001$, * 가변수임

(3) 자료수집절차

연구대상은 이혼편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는 비확률적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여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의 특성상 거부율이 높을 것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들에게 편지와 전화를 통하여 1차 접촉을 시도하고, 연구에 응할 것을 수락한 경우 방문의 형태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다.

본조사는 1998년 1월부터 2월까지 실시되었으며, 총 1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고 65부가 회수되었다. 질문지 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총 61부가 연구의 분석자료로 사용되었다.

결 과

(1) 이혼상황특성,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 따른이혼여성의 친밀감과 생성감 발달

이혼여성의 이혼상황 특성 -이혼시기,

이혼사유-과 친밀감 및 생성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의 특성에 따라 상관관계와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되어 있는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혼여성의 연령과 결혼지속기간 등의 이혼시기는 친밀감 및 생성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사유 중에서는 폭력문제 유무에 따라서 생성감 요인들 중 확대생성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혼사유로 폭력문제를 보고한 여성들이 보고하지 않은 여성들 보다 확대생성감이 낮았다. (표 2)

다음으로 이혼 후 경제적 자원변인(직업유무, 소득수준, 주관적 생활수준, 이혼 후 생활수준차이지각) 및 사회적 자원변인(사회적 지지)과 친밀감 및 생성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변인의 특성에 따라 상관관계와 t-test,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친밀감이나 생성감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표 2. 폭력유무에 따른 친밀감과 생성감의 차이

발달과업		빈 도	친 밀 감		부모역할감	
이혼상황 특성			M(SD)	T	M(SD)	T
폭력사유	유	25	20.80(5.12)	.49	31.52(4.66)	.31
	무	36	21.44(5.05)		31.88(4.38)	
발달과업		빈 도	확대생산감		침 체 감	
이혼상황 특성			M(SD)	T	M(SD)	T
폭력사유	유	25	24.13(4.88)	2.48**	7.92(1.87)	1.04
	무	36	27.06(3.81)		8.50(2.45)	

* p<.05, **p<.01 *** p<.001

났다. 객관적 소득수준은 친밀감과 생성감 발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주관적 생활수준은 친밀감, 그리고 확대생성감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표1.참고). 즉, 현재의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친밀감과 확대생성감을 높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교육수준과 이혼 상황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친밀감 및

표 3. 친밀감 및 생성감 요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다회귀분석

발달과업	친밀감		부모역할감		확대생산감		침체감	
독립변인	B	β	B	β	B	β	B	β
일반적특성								
교육수준	.88	.28	.11	.04	1.21E	-.00	.19	.15
이혼상황특성								
결혼지속기간	.11	.11	-.17	-.19	.15	.17	-1.64	-.04
이성문제사유	1.64	.16	-1.42	-.16	-7.00E	-.00	1.28E	-.06
사회적자원								
사회적 지지	.22	.25	.38	.47***	.36	.45***	-2.24E	-.06
Constant	8.53		23.00		14.14		7.93	
R ²	.14		.27		.25		.03	
일반적특성								
교육수준	.81	.26*	.17	.06	-1.58E	-.01	.19	.15
이혼상황특성								
결혼지속년수	.13	.14	-.19	-.22	.16	.19	-1.44E	-.03
폭력문제사유	-.54	-.05	-7.66E	-.01	-2.28	-.31***	-.45	-.10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21	.23	.38	.48***	.34	.42***	-2.68E	-.07
Constant	10.07		22.03		15.90		8.23	
R ²	.12		.25		.34		.04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	.91	.30*	-1.05E	-.00	-8.56	-.03	.16	.13
이혼상황특성								
결혼지속기간	.13	.13	-.19	-.21	.15	.17	-1.60E	-.04
생활차이문제 사유	-1.09	-.10	1.87	.20	1.00	.10	.29	.06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20	.22	.40	.50***	.36	.46***	7.81	.04
Constant	10.19		21.17		13.70		7.81	
R ²	.12		.28		.26		.04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	.72	.23	.20	.07	2.99E	.01	.17	.13
이혼상황특성								
결혼지속기간	.12	.12	.18	-.21	.15	.17	-2.00E	-.05
경제문제 사유	-1.45	-.14	.44	.05	.29	.03***	-.38	-.09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25	.28*	.38	.47***	.36	.44***	-1.20E	-.03
Constant	9.97		21.09		14.08		8.00	
R ²	.13		.25		.25		.04	

* 이혼시 연령과 결혼지속기간은 이혼시기를 나타내는 변인들이다. 이들 변인들 중 관심변인인 친밀감 및 생성감 요인들과 비교적 관련성이 큰 결혼지속기간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생성감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혼 후 생활수준변화 지각은 유의한 상관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 자원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생성감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관을 보여,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할수록 부모역할감이 높았고, 확대생성감도 높았다(표 1참고). 또한 사회적 지지는 교육수준과 이혼상황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생산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에서 보듯이 교육수준, 결혼지속기간, 이혼사유와 상관없이, 사회적지지가 높은 여성들이 부모역할감과 확대생성감을 높게 보고한다. 반면 생성감 요인들 중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침체감과는 유의한 관련이 없다.

2) 경제적, 사회적 자원변인들의 중재효과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해주는 경

제적, 사회적 대처자원의 중재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이혼상황특성 변인과 대처자원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자원변인들 중 주관적 변인인 주관적 생활수준과 이혼 후 생활수준변화 지각이 이혼상황 변인들 중 이혼사유와 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생활수준은 이혼사유 중 폭력문제의 유무가 침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들 중에서는 폭력문제로 인해 이혼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침체감을 높게 보고하는 반면, 생활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에게서는 폭력문제 유무에 따라 침체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현이혼 후 생활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여성재의 주관적 생활수준이 폭력에 따른 가족해체의 부정적인 영향을

표 4. 침체감에 대한 폭력문제 이혼사유와 주관적 생활수준의 상호작용 효과(N=61)

독립변인	침체감			
	B	β	B	β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	.13	.09	.18	.13
이혼상황변인				
결혼지속기간	-1.19E	-.03	-2.82E	-.06
폭력문제 이혼사유a)	-.53	-.12	4.07	.89*
경제적 자원				
주관적 생활수준	.49	.14	1.89	.56**
상호작용 효과				
폭력문제 이혼사유 × 주관적 생활수준지각			-2.28	-1.12**
Constant	6.95		3.98	
R ²	.06		.16	

* p<.05 ** p<.01 *** p<.001

a) 폭력문제 이혼사유 有=1, 無=0

표 5. 확대생성감에 대한 생활차이문제 이혼사유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N=61)

독립변인	종속변인			
	확대생성감			
	B	β	B	β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	-8.56E	-.03	-.16	-.06
이혼상황변인	.15			
결혼지속기간	1.00	.17	.15	.17
생활차이문제이혼사유 ^{a)}		.10	15.30	1.58*
사회적 자원	.37			
사회적 지지		.46***	.75	.92***
상호작용 효과				
생활차이문제이혼사유 × 사회적 지지			-.49	-1.50*
Constant	13.70		3.00	
R ²	.26		.14	

* p<.05 ** p<.01 *** p<.001

a) 생활차이문제 이혼사유 有=1, 無=0

완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확대생성감에 대해 중재적 효과를 보인다.

사회적 지지는 이혼사유 중 생활차이문
제와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각각 친밀감과

<표 5>을 보면, 사회적지지는 생활차이
문제로 인한 이혼이 확대생성감에 미치는

표 6. 친밀감에 대한 경제문제 이혼사유와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 효과 (N=61)

독립변인	종속변인			
	친밀감			
	B	β	B	β
일반적 특성				
교육수준	.72	.23	.83	.27*
이혼상황변인				
결혼지속기간	.12	.12	.17	.17
경제문제 이혼사유 ^{a)}	-1.45	-.14	12.06	1.20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지	.25	.28*	.47	.52**
상호작용 효과				
경제문제 이혼사유 × 사회적 지지			-.48	-1.45*
Constant	9.97		3.21	
R ²	.13		.14	

p<.05 ** p<.01 *** p<.001

a) 경제문제 이혼 사유 有=1, 無=0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가 높은 여성들 중에서는 생활차이문제로 인해 이혼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확대생성감을 낮게 보고하는데, 반면 사회적 지지가 낮은 여성들에게서는 생활차이문제로 인해 이혼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확대생성감이 높았다. 사회적 지지가 일반적으로 확대생성감과 정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생활차이문제라는 이혼사유의 맥락에서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 지지는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6).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는 여성들 중에서 경제 문제로 인해 이혼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친밀감을 낮게 보고하는데 반하여, 사회적 지지를 낮게 지각한 여성들 중에서는 경제문제로 인해 이혼한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친밀감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이혼사유 중 경제문제의 맥락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이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이혼이 여성의 성인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이혼의 상황적 특성과 이혼 후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자원에 따라 이혼 후 여성들의 친밀감 및 생성감 발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히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이혼이 여성의 발달

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규명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혼상황특성 변인들 중 연령이나 결혼지속기간은 친밀감, 생성감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로서 자녀양육기라는 비교적 유사한 가족발달주기에 있기 때문에, 가족발달주기를 나타내는 연령이나 결혼지속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원인으로 폭력문제를 보고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확대생성감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에 의해 구타당하였던 아내들이 인지적, 정서적, 생리적으로 병리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Walker, 1979, 1984, 1989, 1991;)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립하고 확대시켜 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둘째, 경제적 자원 변인들의 객관적인 지표인 소득수준과 직업유무는 친밀감과 생성감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는 반면, 주관적인 지표인 주관적 생활수준과 이혼 후 생활수준변화 지각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이혼여성이 객관적으로 어떠한 자원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주관적으로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이들의 발달에 더 큰 기여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는 자신의 경제적 자원을 높게 평가하므로써 생활문제에 상대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대하게 되어 이성관계나 확대된 의미의 양육자 역할의 긍정적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셋째, 사회적 자원변인으로서 사회적 지지는 부모역할감과 확대생산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은 교육수준이나 이혼상황변인을 통제 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사회지지가 많다는 것은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사회관계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므로 부모역할감이 높게 나타나고, 부모역할에서 더 나아가 확대된 의미의 자아감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제적, 사회적 자원 변인들은 이혼상황특성 변인들 중 이혼사유와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폭력문제가 침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중재하여,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경우 폭력문제를 보고했을 때 침체감이 더 높게 나타나는 반면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여성들의 경우는 폭력문제유무에 따라 침체감에 차이가 없었다. 이는 이혼 후의 생활수준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이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해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이혼여성에게 일관성 있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생활차이 문제와 경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이혼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기 보다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관계망이 사회적 지원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긴장과 갈등의 원천이 될 수도 있어 자존감의 손상, 문제행동 강화, 새로운 기회 및 성장의 제한 등의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Rands(1988), 원효종(1997) 등의 주장을 바탕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폭력문

제나 이성문제로 이혼한 경우와 달리 생활차이문제나 경제문제로 인한 이혼의 경우 이혼여성이 이혼 전부터 친정 등의 사회관계망에 많이 의존해 왔었거나, 이혼 후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과도하게 긴밀한 사회관계망은 기존 사회관계망을 벗어나는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어렵게 하거나, 개인의 자율적인 성장발달을 저해하는 역기능을 하게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혼상황특성 중 이혼사유와 경제적, 사회적 자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혼여성의 성인기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이혼사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이혼하였는가에 따라서 경제적, 사회적 자원의 기능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이혼여성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와 경로를 일반화하기에는 표본수가 적고, 성인기 발달을 측정하는 척도를 신뢰도나 타당도 면에서 충분히 표준화시키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혼여성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더 나아가 각 이혼사유에 따른 발달과업 수행에서의 문제들을 규명하여 줌으로써 이후 이혼여성들의 개인적 특성과 이혼사유, 자원수준정도를 고려한 이혼여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으로는 이혼여성의 발달과업 수행 정도와 그 관련변인들의 영향 등의 직접적인 원인이 이혼사건 자체인지 아니면 다

른 상황적 원인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과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곽배희(1994). 이혼원인 및 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6). 빈곤층 편모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부모역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 김갑숙, 최외선(1995). 편모가정 자녀의 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 김순옥(1993). 이혼원인의 실증적 연구. 『이혼과 가족문제』,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서울: 하우출판사.
- 나인옥(1998). 이혼가정 모자간의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법원행정처(1995). 『사법연감 1995』. 서울: 법원 행정처
- 성정현(1998). 성역할 태도와 이혼 여성의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화용, 조병은(1996). 편모가 인지한 자원과 편모의 심리적 복지감. 가족학논집, 8. p.57-76.
- 원효중(1997). 도시 핵가족 주부의 사회관계망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장휘숙(1993). 『청년심리학』. 장승출판사.
- 조병은, 서동인, 신화용, 정한숙(1998). 편모가족의 어머니와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미치는 자원의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6-1.
- 통계청(1990). 『인구동태 통계연보(1999)』. 서울: 통계청.
- (1997a). 『1996 인구동태-출생, 사망, 혼인, 이혼신고에 의한 분석』.
- (1997b). 『1997 한국의 사회지표』.
- (1998). 『1997 모자가정 실태조사』.
- 한경혜(1993). 이혼여성의 문제와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41. p.127-150.
- (1993). 한국 이혼부부의 적응과 관련변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가족학 연구회. 『이혼과 가족문제』. 하우출판사.
- 허정원(1998). 이혼한 편모의 가족 및 사회관계망 지원과 이혼 후 적응.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eal, E.W.(1980). Divorce & single parent families, *In The Family Life Cycle*. Gardner Press, New York.
- Berman, W.H. & Turk, D.C.(1981). Adaptation to divorce :Problems and coping strategies. *Journal of Marriageand the Family*, p.179-189.
- Bursik, K.(1991). Adaptation to divorce and ego development in adult women. *Journal of*

-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p.300-306.
- (1986). Adaptation to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 A context for ego development in adult women. Ph.D Dissertation, Boston University.
- Cheryl, C.(1982). *The relationships of locus of control, sex-role attitudes and conceptualization of separation experience to long-term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Ph.D. Dissertation. Univ. of Colorado.
- Chiriboga, D.A., Roberts, J. & Stein, J.(1978). Psychological well-being during marital separation. *Journal of Divorce*, 2. p.21-36.
- Duffy, M.(1995). Factors influencing the behaviors of divorced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3. p.1-13.
- Emery, R.E. & Dillon, P.(1994). Conceptualizing the divorce process. *Family Relations*, 43. p.374-379.
- Erikson, E.H.(1968). The human life cycle. *In the A way of looking at things*. Schlein, S(ed.). Norton (1995).
- Guttman, J.(1993). Divorce in Psychsocial Perspective : *Theory and Research*. New Jersey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eatherington, E.M(1989). Coping with family trauments : Winners, losers, and survivors. *Child Development*, 60. p.1-14.
- Heatherington, E.M., Cox, M. & Cox, R.(1978). Divorced fathers, *Psychology Today*, 10. p.42-46.
- Kitson, G.G. & Morgan, L.A.(1990). The multiple consequences of divorce :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4). p.913-924.
- Kurz, D.(1995). For Richer, For Poor : *Mothers Confront Divorce*. Routledge.
-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 Knopf.
- Macoby, E.E. & Mnookin, R.M.(1992). Dividing the Child : *Social and Legal Dilemmas of Custody*. Cambridge, MA : Havard.
- McGoldrick & Carter, E.A.(1980). The life cycle and family therapy in The Family Life Cycle :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 Gardner Press. p.3-21.
- McLanahan, S. & Booth, K.(1989). Mother-only families :Problems, prospects and politic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p.557-580.
- Parkes, C.M. & Weiss, R.S.(1983). *Recovery from Bereavement*. New York : Basic Book.
- Price, S.J. & McKenry, P.C.(1988). *Divorce*. Newbury Park : Sage.
- Rands, M.(1988). Changes in social

- networks following marital separation and divorce. In *Families and Social Networks*. Milado, R.M.(eds.). Newbury Park : Sage.
- Raschke, H.(1987). Divorce. Sussman, M. & Steinnetz, S.(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 Plenum.
- Richards, L. & Schmiede, C.(1993). Problems and strengths of singleparent families :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policy. *Family Relations*, 42. p.277-285.
- Scott, E.L.(1991).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female adjustment to marital dissolution*. Ph.D. Dissertation. City Univ. of New York.
- Spanier, G.B. & Castro, R.F.(1979). Adjustment to separation and divorce : An analysis of 50 cases studies. *Journal of Divorce*, 2(3). p.241-253.
- Walker, A.J.(1985). Reconceptualizing family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p.827-837.
- Walker, L.E.A.(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 Harper & Row.
- Walsh, F. & McGoldrick, M.((1988). *Loss and the Family Life Cycle. Family Transition*. Minuchin, S.(ed.). Guilford Press.
- Wallerstein, J.S. & Blakeslee, S.(1989). *Second Chances : Men, Women, and Children a Decade after Divorce*. New York : Ticker & Fields.
- Wallerstein, J.S. & Kelly, J.B.(1979). *Surviving the Breakup : How Children and Parents Cope With Divorce*. New York: Ticker & Fields.

The implication of divorce in the development of intimacy and generativity among divorced women

Hye Kyong Choi
Jeong Shin An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divorce experiences were related to adulthood development of divorced women in terms of intimacy and generativity, and to examine how divorce situation and social or economic resources differentiated their experiences after the divorce.

The subjects were composed of 61 divorced women who cared for children under 18. The important finding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1) Those women who reported husband violence as the cause of divorce were lower in the score of extended generativity than those who did not, (2) Social support had positive effects on divorced women in terms of the perceived caregiver role and extended generativity, even when education and the period of marriage at the divorce were controlled for, (3) Th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of social or economic resources in relation to the cause of divorce were found.

Key Words : the cause divorce • economic resources • social support • intimacy • generativity